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몸은 소유물 아닌 관리물

성태를 길러라 ④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방향을 딱 정해 놓으면 그때는 마 그 사람은 벌써 견성한 거나 한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언제 되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삼마지 사마타 이걸 갖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은 벌써 법 어언데 그러면 이 이름을 전부 외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로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참 아닌 게 아니라 어렵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중생의 본오로만 봐서 어렵지 법신분으로 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법신이 어디 들어앉아 있습니까? 가족 주머니, 여기 들어앉아 있지 않아요? 여기 전부 통밖에 더 들었어요? 또 느낌도 없는 것. 그러하니 이거를 확실히 말이지요, 이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진 내 관리물은 필지언정 내 소유물은 아니다 말이지. 이거를 갖다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람 몸을 갖다 우리가 알려면 의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딱 판명이 되 버리면 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법신자리가 있어. 법신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 내 몸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다 하는 것도 법신자리가 아는 것이지, 이거 자성이 있나?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마세요. 인제부터는 여러분의 몸통이를 여러분이 비록 쓸지언정, 관리하면서 쓸지언정,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말이지 여기에 딱 들어앉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버려버리란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걸 버려버리면 묘용의 도리가 없어져. 우리는 말이지 우리의 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묘용의 도리를 갖다가 이 가짜 육신이 변하는 육신 늘어가는 육신 그야말로 불구멍이나 흠구멍이 향해서 가는 이 육신을 견어잡고 말이지 인생놀이를 할지언정 그런 줄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 왜 그러느냐. 확인이 될 턱이 없는 겁니다. 만약 확인이 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그대로 알 따름이지 그걸 갖다 우리가 볼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하니 다만 중생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업덩어리 하나, 이거 업의 소산 이거든요. 업덩어리. 남자 몸도 나뉘. 여자 몸도 나뉘. 재주있는 사람도 나뉘. 재주없는 사람도 나뉘. 이거 업 심부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이지 이것이 내 다 해서 말이지 해봤든 결국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지어 나갈 수 있는 방편을 내 스스로가 작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아니냐? 내다 이래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릇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공부 설혹 됐다 할지라도 그건 그릇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올바른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견해를 굴려야 되지. 내가 올바른 자리에 앉았도 그릇된 자리에 앉아서 바른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말이지 벌써 그 공부 자체가 올바로 되지 못해. 그런 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된 사람이 바른 법을 쓰면은 그 법이 사되고 또 바른 사람이 사된 법을 쓰더라도 그 사된 법이 발라진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견해를 올바로 가져서 올바로 닦아나가야 되지, 그 머리털만치라도 하나 말이지 그릇된, 다시 말하자면 요새 말로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는 걸 갖다 자기가 합리화 시켜. 아 요거는 요러니 요래야 되겠다.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좋게 해서 자기 안심을 하려고 이러한 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 재주밖에 안됩니다. 참말로 도깨비도 옳은 도깨비가 못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 대로 한 것이 나야. 어떤 기회에 가서 어떤 무엇이 될지언정 그리 해야지, 사견을 세워서 지견을 세워서 아 요러하니 요랄다 또 요러니 요래게 합리화 시켜서 이래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거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내 관리물이라. 그렇다면 이거는 말이지 좋은 줄을 아요 나쁜 것을 아요. 사실로 아닌 게 아니라 말이지. 여기서 내 법신 딱 떠나버리면 흠구멍이 집어넣어도 모르고 불구멍이 집어넣어도 모른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말이지요. 화장터 가서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공동묘지 가서 우리가 보거든. 보기는 봐.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렇다하면은 참말로 나는 말이지 이 가족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난데,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 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말이죠 지금 말한 삼마지 이것이 말이죠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진 내다 그래서, 이진 내다 생각할 때 이진 그릇된 생각이거든요. 내가 아닌 걸 내라 하나가 이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 필요도 없지않은 우리가 육신분으로 봐서는 서둘러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법신분에 앉을 줄 알면은 우리가 서둘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 올바른 방편을 그대로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다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는 벌써 이미 시공간이 끊어낸 자리거든요. 그러하니 참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은 말이죠 이 올바른 그 방편 윤곽, 이까지 가는 것이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어려우니 그만 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 다 인연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참말로 이 상수설법은 말이죠, 만 명 갖다 놓으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천 명 안 됩니다. 잘하면 한 백 명 이백 명 남고 그렇습니다. 잘 하면, 왜 그러냐. 그건 업 관계거든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대승보살은 못사람 위해 자비 베푼다

13-2. 보은계(報恩偈)

은혜를 느낀다는 일이 중요한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보은(報恩)하는 것, 즉 은혜 갚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은 이상 이를 보은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부처님에게 갚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불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후계자로서 대승보살이 되었다. 대승보살(大乘菩薩)이 된 그 자격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은 중생을 건진다는 것, 그러니까 못사람을 위해 못사람에게 대자대비를 베푼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번번히 일컫는 바 대사회(大社會)의 건설이며 대사회의 사명 의식 대사회의 목적 등을 아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우주, 전 인류를 복지 사 회로 이끌어 나아가며 이것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큰 비원을 이룬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무엇과 같으나 하면 우주를 통틀어 대사회로 볼 때 이러한 대사회에 제가공의, 개개의 생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친다면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그동안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부처님 사랑받고 불제자 돼 중생구제 원력은 대승보살의 자격 대자대비 베푸는 것은 불법 가르침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자식 돌보듯 이웃도 애뜻한 마음 갖고 살려야 돼

생명체가 독립되어 대사회를 위해, 우주를 위해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한 자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큰 환희를 느끼고, 이제까지의 내포한, 그리고 고통을 받던 일이란 이데면 그 생명체를 완전히 독립시키는데 이르 기까지의 흥여를 치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려 커다란 환희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은중경(恩重經)에서는 생자망우(生子忘憂)라고 한다. 어머니가 얘기를 낳고 나서 온갖 걱정을 싹 잊어버리고 튼튼하게 열매나 반가운가 하는 그런 환희를 말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령 우리가 한낱 생명에 있다고 보는 난초 한 포기라거나 꽃밭에 있는 장미 한 그루라거나 심지어 작은 봉선화 같은 화초일지라도 그것이 움직이 터 좋은 자리에 심어 두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른다는 것은 흡사 우리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쓴 것을 자신이 삼키고 단 것을 토해서 자식의 입에 넣어, 아끼는 것과 꼭 같은 심정이다. 봉선화 하나라도 잘 가꾸려면 좋은 거름 될 만한 것을 주어 길러 낸다. 소중한 난초 포기를 기를 양이면 또 얼마만한 주의 정성이 드는 것일까. 비로 주는 것이라든지 손을 보아 가꾸는 것이라든지, 벌레가 달라지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벌레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약을 친다든지 하여 길러낸다. 이는 흡사히 따뜻한 데 있어서 안 되고, 너무 찬 데 놔두어도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노릇과 같아 회견취습(廻乾就濕)이 된다. 진자리에, 오줌 똥 싸서 더러워지고 추하게 한 데는 자신이나 앉고 마른 자리에 깨끗한 좋은 자리에 아들 딸을 놓는 것과 같다. 식물이건 사람이건 다들 바 없으면 생명체를 완전히 잘 보육하는 데는 역시 같은 현상이다. 또 포포

은 자리에 심어 두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른다는 것은 흡사 우리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쓴 것을 자신이 삼키고 단 것을 토해서 자식의 입에 넣어, 아끼는 것과 꼭 같은 심정이다. 봉선화 하나라도 잘 가꾸려면 좋은 거름 될 만한 것을 주어 길러 낸다. 소중한 난초 포기를 기를 양이면 또 얼마만한 주의 정성이 드는 것일까. 비로 주는 것이라든지 손을 보아 가꾸는 것이라든지, 벌레가 달라지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벌레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약을 친다든지 하여 길러낸다. 이는 흡사히 따뜻한 데 있어서 안 되고, 너무 찬 데 놔두어도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노릇과 같아 회견취습(廻乾就濕)이 된다. 진자리에, 오줌 똥 싸서 더러워지고 추하게 한 데는 자신이나 앉고 마른 자리에 깨끗한 좋은 자리에 아들 딸을 놓는 것과 같다. 식물이건 사람이건 다들 바 없으면 생명체를 완전히 잘 보육하는 데는 역시 같은 현상이다. 또 포포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최희원 회장) 전 3권(전 1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불교예술평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평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법배 소리과정 (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사삼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3시 ~ 4시
사삼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 (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오후 4시 ~ 5시 30분
바라춤 - 요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법배·작법부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법배·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부평동)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율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중
-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 : 매주 일요일 ◀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